

하나된 울림으로 세상을 바꾸다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01+02 2011 VOL. 18

국민권익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공유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참세상,
튼튼한 뿌리가 되는
ACRC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정부대표전화 110

복패신고
1398



국민권익위원회



겨우내 얼어붙은 잔가지에 말갱게 새순이 돋아납니다.

봄눈처럼 가볍게 내려와 슬며시 움튼 희망.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국민의 가치와 권익을 위한 나라.

국민의 행복이 실현되는 따뜻한 사회가 다가옵니다.

기획특집

04 Special

2011 국민권익위원회 새로운 뜻을 펼치다

08 ACRC Issue

권익위, 부패 척결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앞장설 것

12 Global Issue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옴부즈만 제도를 위해

발행일 2011년 2월 24일(격월간, 통권 18호, 비매품)

발행인 김영란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편집인 이내희

주소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전화 02 360 2726 팩스 02 360 2699

홈페이지 www.acrc.go.kr

기획/디자인/인쇄 성우애드컴 02 890 0904

외부필자의 원고는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Bimonthly Magazine of ACRC

01 + 02

2011 vol. 18



희망공감

16 국민의

시민 릴레이 인터뷰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란다”

18 국민에 의한

일상적 차별에 신음하는 장애인들

20 국민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다시 찾은 ‘웃음’

24 통계

2010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26 지켜줘요! 국민권익!

도화구역 비닐하우스촌 이주대책

28 오피니언

외국인 아내에 대한 우리의 오해

행복누리

30 우리 문화

우리 고유의 장식문화로 발달한 ‘매듭’

34 아름다움 그리고 사람

자연과 일상에 의미와 아름다움을 부여하다

38 법과 권익

중요 체크! 2011년 변경되는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40 건강한 삶

당신의 삶에는 긍정적 강박관념이 있습니까?

42 카메라에 비친 풍경

느림의 미학, 여유를 찾아 떠나는 경기도 기차여행

46 또 다른 세상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희망보고서
(100년 전 대한제국 100년 후 대한민국)

48 ACRC News

50 편집 후기





2011 국민권익위원회 새로운 뜻을 펼치다

– 김영란 신임 위원장, 김대식 신임 부위원장 취임

지난 1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 신관 대강당에서 김영란 신임 위원장과 김대식 신임 부위원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김영란 위원장은 첫 여성대법관 출신이며 김대식 부위원장은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최근 청렴에 관심이 높아진 국민들의 많은 기대와 지지속에 취임한 두 사람의 신념을 들어보았다.

2011. 1. 3.(월) 국민권익위원



2011년 새해가 밝자마자 새로운 위원장을 맞이하게 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기관으로서 그간 국민의 수호자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만 국민권익증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새로운 동력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 그래서 새로이 취임하는 두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해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크다.

김영란 위원장 –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김영란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지던 관행을 깨고 파격적으로 대법관이 된 그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여러 건의 판결로도 유명하다. 대법관 퇴임 후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대학에서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



써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다.

이런 그녀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게 됐으니 국민들의 기대가 큰 것도 당연하다. 취임식에서 그 기대에 부응하듯 “저는 정치적인 사람도 아니고, 국민권익위원장은 정치적인 자리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법률적으로만 판단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제가 생각하는 법과 원칙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며 취임사를 통해 자신의 철학을 드러냈다.

또한 그녀는 그동안의 권익위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권익위가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통해 공정사회를 건설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식 부위원장 - 현장에서 답을 찾는 ‘움직이는 리더십’

김대식 신임 국민권익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지냈다. 대학에서 21년간 학생들만 가르쳤던 만큼, 그는 자리에 욕심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일’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다. 그는 벌써 부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직접 지역을 돌면서 많은 문제를 보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는 많은 국민들이 하소연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공직자가 이런 것들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사회란, 결국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라고 그는 말한다.

“현장을 다녀보니 답은 거기 있더군요. 탁상행정이 아니라 발로 뛰면서 국민의 마음을 읽어주고 같이 눈물 흘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임식에서 “열심히 일하다 그릇을 깨는 것은 나와 위원장이 책임지겠다”며 “열심히 하지 않고 그릇도 깨지 않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라고 강조했던 그는 김영란 위원장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녀는 그동안의 권익위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권익위가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통해 공정사회를 건설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Interview



Interview

김영란 위원장

“억울한 사람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Q. 신임 위원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A.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 부패한 사법풍토의 개혁과 국민권익 개선에 공헌하기를 기원한다”는 국민들의 응원 메시지를 저도 들었습니다. 저를 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 달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소수자 보호를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권익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큰 것은 이러한 것에 대한 기대 때문 아닐까요?

Q.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정사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국민권익위원회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부패방지, 국민고충 해결, 행정심판 처리와 같은 권익위의 고유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권익위야말로 공정사회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선, 청탁의 근절 노력과 함께 서민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사례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직무관련 정보 거래, 병역 의무의 부당한 회피 등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다양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찾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Q. 공직사회에서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공직자들이 부패행위로 치르는 사회적 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것은 이기적 욕망 때문이라고 봅니다. 부패의 토양이 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비합리적인 연고, 온정주의 문화, 법령과 제도상의 부패유발 요인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 권익위원회는 올해 부패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Q.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앞으로의 남다른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부패라는 질병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임무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패에 굴복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 길은 혼자 힘으로는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직원들과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찾을 것입니다. 특히 권익위가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부패인식지수(CPI)를 끌어올리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 청렴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입니다.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해 공무원들은 무엇보다 공과 사를 막론하고 자기관리를 잘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매사에 청렴하고 깨끗한 사고를 지니고 있을 때 각종 청탁이나 비리 사건에 빠질 수 있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고 강조했다. 부패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공무원 스스로 심리적 무장을 잘 해야 한다는 강직한 청렴관을 가진 김 위원장이 만들어갈 ‘청렴韓 세상’을 기대해보자.



Interview

김대식 부위원장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
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Q. 벌써부터 현장에 직접 나가며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A. 무슨 자리를 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같은 감정을 공유하려면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인천과 부산의 산업단지에서 이동신문고를 개최해 근로자들의 현장고충을 듣고, 소음으로 고통받는 천안 시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등 전국의 민원현장을 다니는 것도 이런 맥락인가요?

A.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과 현장에 나가 눈으로 확인하고 민원인들의 고충을 직접 들어보는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다보면 사무실에서 미처 찾지 못했던 해결방법이 자연스럽게 나오더군요. 저는 ‘현장방문’이라는 이름으로 택시업계나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처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 역시 잘 몰랐던 업계의 고충도 알게 되고, 권익위가 개선해야 될 제도를 찾아나가는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

Q. 김영란 위원장님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십니까?

A. 부위원장으로서 우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야죠. 위원장님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의 중심에서 공정사회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겁니다. 또 열심히 일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책임질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직원들이 걱정 없이 일에 매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어놓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부족한 점은 열정으로 극복하겠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를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다른 부처 공직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신바람 나는 권익위가 되길 희망합니다. 저부터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언제나 지켜본다는 점을 명심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profile

김영란 위원장이 걸어온 길

부산 출생 / 경기여고, 서울대 법대 졸업 / 제20회 사법고시 합격 >> 198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8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1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03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4년 ~ 2010년 대법원 대법관 >> 2010년 10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2011년 2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부위원장이 걸어온 길

전라남도 영광 출생, 한양대학교대학원 일어일문학 박사 >> 일본 교토오타니대학교대학원 문학박사 >> 동서대학교 교수를 거쳐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 2008년-2010년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 >> 2011년 2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견리사의(見利思義). 공자는 일찍이 '이익을 보면 그것을 취하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하라'고 했다. 고대 철학자 헤라이클레이토스는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다'고 말했다. 록 스타 커트 코베인은 '젊은 날의 의무는 부패에 맞서는 것'이라 외쳤다. 인류는 이처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패'에 대해 경계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공직자에게 청렴이 강조될 만큼, 사회 속에서 '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뿌리 깊은 부패를 없애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의지가 더욱 단호해질 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평가에서 5.4점을 받아 조사대상 178개국 중 39위였다. 2009년에는 5.5점으로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해 순위 변화가 없었다. 우리의 성적은 OECD 평균 6.97점에 비해 1.57점 낮고 OECD 30개국 중 22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토착·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은 안타깝게도 답보 상태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 모든 시스템이 청탁 및 알선과 같은 부패 없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공정사회가 실현된다는 판단 하에,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와 공공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청렴조사평가 워크숍'을 연이어 개최하며, 부패 척결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였다.

권익위, 부패 척결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앞장설 것!



부패 · 청렴대책 추진지침 전달 및 청렴결의대회

일 시 | 2011년 1월 13일(목)

장 소 | 계동 현대사옥 대강당



“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만큼 올 해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에 온 역량을 기울이겠다. ”

하나 -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958개 각급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하는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를 권익위 청렴교육관에서 개최하였다. 권익위는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을 올해의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표준모형을 개발해 각급 기관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고위공직자 범위를 정해 1년 이내에 이들이 청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어 2월 3일부터 시행중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조기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란 신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알선·인사 청탁 같은 부패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만큼 올해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에 온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부패 척결' 의지 강력 천명

알선·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도 추진된다. 알선이나 청탁수준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알선·청탁 근절 노력도를 평가하며, 현행법령과 제·개정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알선·청탁 소지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에 발표



한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은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34.6%), 금품수수(17.6%), 공금횡령·예산 유용(15.1%)순이었다.

또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조리들이 공직기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판단해 산하기관에 자녀나 자신의 선거참모, 친인척 등을 부당 취업시키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친인척, 퇴직 공직자 등에게 부당한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적극 점검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권개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감시 시스템도 강화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이들 역점과제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재 공직유관단체와 공동으로 '청렴 8도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하반기에는 재외공관의 청렴도를 시범 측정하는 등 청렴수준 진단과 환류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부패 공직자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관리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공직유관단체에게까지 자료 입력 권한을 주어 자료 입력의 책임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적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해 부실하게 입력하거나 누락한 것이 확인되면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 감점하는 제재도 가할 계획이다.

둘 - 청렴조사평가 워크숍

권익위는 지난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천안시 지식경

제공무원교육원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청렴조사평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35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157개 지방자치단체, 162개 지방교육청, 19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552개 기관의 청렴업무 실무담당자 약 608명이 참여하였다.

'청렴조사평가 워크숍'은 청렴조사평가 업무에 대한 각급 기관 업무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피평가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청렴도 측정 업무를 개선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공공기관이 금년도 청렴시책을 수립하는 시기에 맞추어 진행함으로써 권익위 청렴정책과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정책 간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이 조율되었다.

워크숍 첫째 날인 1월 18일에는 부패취약분야 종합개선(BPR) 추진에 관한 전문가 강의를 진행되었고, 둘째 날에는 2010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분임토의가 진행되었다. 애로사항, 개선요구 사항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업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되었다.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평가' 방향 제시

매년 열리는 '청렴조사평가 워크숍'에서는 각급 기관의 우수사례를 소개하여 다른 공공기관에게 노하우와 경험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수상 기관에게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도 2010년도 반부패수범사례,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BPR), 정책투명성 진단 등에서 우

수한 성과를 거둔 관세청, 전라북도, 제주교육청, 교통안전공단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을 실무자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자들의 궁금점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1년도 청렴도 측정의 골자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2010년도에 대폭 확대된 신규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을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고 청렴도 개선추이를 분석하고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과 2009년도에 시범 실시한 국제거래 청렴도를 올해 다시 측정하기로 한 점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청렴도 측정결과 하위기관에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평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등 타기관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에도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금년부터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청렴도 측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다보니 평가지표, 평가방법, 결과 활용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권익위는 내부 검토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1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글 김명화(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조사관)

지난 2010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국제옴부즈만협회(IOI)가 주최한 옴부즈만 교육에 참가하였다. '당신의 논리(말)를 날카롭게 하라'라는 부제가 달린 이 교육에는 옴부즈만 업무를 담당하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17개국 공무원 39명이 참가하였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옴부즈만으로 활동하는 앙드레 마린(Andre Marin)과 바바라 핀리(Barbara Finlay)가 3일 내내 열정적으로 체계적인 조사 방법과 사례들에 대해 강의하였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옴부즈만 제도를 위해 국제옴부즈만(IOI) SYT(Sharpening Your Teeth) 훈련참가 소감



환영만찬



비엔나 시청 앞 크리스마스 마켓



“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도시’로, 수많은 오래된 건물들이
장관을 이루었다. ”

아름다운 도시 ‘비엔나’에서 개최된 옴부즈만 교육

이 훈련이 개최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도시’로, 수많은 오래된 건물들이 장관을 이루었다. 이 건물들은 중세시대 또는 르네상스시대에 대부분 건축된 것으로 전쟁 시 화재로 소실되기도 하고 다시 재건축되기도 하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런 이유로 비엔나의 구도심 지역에는 수선 중인 건축물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머문 호텔은 비엔나의 구도심에 있었는데 각종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카르트너 거리를 끼고 있었다. 덕분에 비엔나의 영혼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징적인 건물인 슈테판 성당을 매일 볼 수 있었다.

첫 공식적인 일정은 11월 14일 오후의 시티투어로 시작되었다. 관광안내원은 우리가 머문 호텔 바로 앞에 있는 합스부르크가 교회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궁과 현재 대통령집무실로 활용되고 있는 건물을 안내해주었고, 도심 한 가운데에서 발굴된 로마시대 주거지도 보여주었다. 시티투어는 약 4시간 소요되었고, 관광안내원의 설명을 듣는 동안 오스트리아의 역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40대 후반 정도로 어림짐작되는 관광안내원은 비엔나와 오스트리아의 역사에 대해 무한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고 그런 모습은 큰 신뢰감을 들게 했다.

시티투어가 끝나고 우리는 국제옴부즈만협회 사무총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초대되었다. 훈련과정 참가자 전원이 참석하였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참가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한 덕분에 그 다음날부터 시작된 훈련과정은 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옴부즈만 조사를 위한 훈련

옴부즈만인 앙드레 마린과 바바라 핀리가 진행한 훈련과정은 12개 분야로 나뉘어져 ①서론 ②체계적 조사와 특별조사팀 운영 ③조사에 대한 평



국제옴부즈만협회 사무국 청사에서 교육 등록

가 ④조사계획 ⑤조사시행 ⑥증인과 면담 ⑦신청내용 목록 ⑧내부고발자 ⑨조사와 대중 매체 ⑩증거의 평가 ⑪보고서 쓰기 ⑫감시자의 고발 순으로 진행되었다.

온타리오주 옴부즈만인 앙드레 마린은 서론에서 토론토 G20 정상회의 시 경찰에게 수많은 시민들이 부당하게 구타당하거나 연행된 사건을 소개해 주었다. 바바라 핀리는 이번 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는 ‘체계적 조사와 특별조사팀 운영’ 시간을 통해 모든 조사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힘주어 설명하였다. 또한 체계적 조사를 위한 수단으로 특별조사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하였다.

옴부즈만 조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계적으로 조사할 사건들을 구별하고, 조사 시기를 결정한 다음 민원인이 제기한 즉각적인 이슈를 넘어서는 보다 근원적인 주장들을 찾아내고, 감춰진 원인들을 분석하여 이슈들을 진단하고, 숨겨진 사회적 병폐(문제)들을 찾아내라고 했다. 체계적 조사를하기로 결정한 뒤에는 조사를 위한 계획서를 만들고, 사실을 수집하고 기존의 증거들을 정비하고, 다른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유사한 이슈에 해당하는 민원을 수집하고 체계적 조사대상이 되는 이슈인지를 판단할 것, 그리고 민감한 이슈인지,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논쟁거리가 되는지, 증인들이 있는지,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체계적으로 이슈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서식에 관련 정책 및 절차, 유사사례의 수, 민원의 민감성, 대중의 관

“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사팀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칠 필요가 있다. ”

심, 심각한 불공정성의 여부 등을 기록한다. 조사하는 동안에는 강제적인
요소들을 배제하여야 하고, 권고의 중대성, 다른 단체와의 관련성, 자원(인
적, 물적)의 효율적 이용, 비공식적 해결의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또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사팀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최대한 빨
리 조사를 마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례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와 매체 이용의 중요성 강조

온타리오 옴부즈만이 소개한 중요한 두 가지 조사사례는 ‘토론토 G20
정상회의 시 경찰의 시위 과잉진압’ 과 ‘복합장애자에 대한 수당지급 지
연 및 거부사건’ 이었다. 토론토 경찰의 시위 과잉진압 건은 소셜미디어
를 효율적인 조사 도구로 활용한 사례로 소개되었다. 여기서 소셜미디
어라고 하면 인터넷에 개인들이 손쉽게 동영상, 메시지를 게시할 수 있
고 또 이를 다수가 공유하거나 확산할 수 있는 트위터(twitter), 유튜브
(You tube), 플릭(flickr), 페이스북(facebook) 등을 말한다. 이들 소셜미
디어에는 G20 정상회의장 둘레에 처진 담장으로부터 5미터 이내 일반
인의 접근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시민들이 부당하게 검문검
색을 당하거나 폭행당했음이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겨졌다. 이는 인터넷
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었고 온타리오 옴부즈만은 조사 시 이를
증거로 활용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조사표의 작성과 유사사례 수집, 언론보도의 효율적 이
용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었다. 벨기에 참가자들은 온타리오 옴부즈만이
소개한 ‘복합장애자에 대한 수당의 지연지급 및 거부 민원’ 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인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며 조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자



강의 중 휴식시간

신들은 이와 유사한 경우라면 개별적인 민원으로 처리하면서 프라이버
시를 좀 더 중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하였다. 또 조사를 진행하면
서 점차 ‘중립자’ 에서 ‘옹호자’ 가 되게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중립
자’ 로서의 입장 견지가 옴부즈만에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
하였다. 필자 또한 그 의견에 공감하면서 옴부즈만 제도는 각 나라의 역
사와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그 밖에도 체계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유용한 기술에 관한 교육이 진행
되었다. 특히 조사를 진행할 때 피신청인의 상위 직급자와 접촉하라는
것, 해당 부처에 조사 진행 사실을 통보할 것,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는
지 결정하고 문서뿐 아니라 사진자료도 요구할 것, 연관성 있는 이슈들
을 찾을 것 등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다.

선진 옴부즈만으로 가기 위한 제언

결론적으로 나는 이 훈련을 받으면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우리 옴부즈
만제도에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첫째, 사인간의 관계라 하더
라도 공익 및 시민생활에 관련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할 것. 둘
째, 시정권고의 항목을 구체화하고 개별화하여 적시하고, 피신청인에게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사항도 포함할 것. 셋째, 시정권
고를 하기까지 조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권
고사항에 이를 포함할 것. 넷째, 시정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 기관장의 서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회신할 것 등
이다.

마지막 날은 모든 참가자들과 강사진, IO 사무총장 피터 코스텔카, 사무
국 직원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일정상 더 많은 논의를 하지 못했지
만 훈련은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하였다. SYT 훈련의 좋은 기억은 오래
도록 남을 것이다.

HOPE EMPATHY

희망공감

국민의

시민 릴레이 인터뷰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란다”

국민에 의한

일상적 차별에 신음하는 장애인들

국민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다시 찾은 '웃음'

통계

2010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지켜줘요! 국민권익!

도화구역 비닐하우스촌 이주대책

오피니언

외국인 아내에 대한 우리의 오해



시민 릴레이 인터뷰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화하고자 <국민권익> 소식지에 <국민의>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더불어 바라는 점을 담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세요 _ 신후철 (엔피에프(주) 대표)

제조업체인 저희 회사는 지난 2007년 도로 확장과 정비 등을 지자체에 요구했으나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으로 도로 개설을 할 수 없어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설비를 증설하거나 제품을 운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항상 도로 붕괴 및 사고의 위험을 안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이 같은 상황을 알렸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권익위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권익위의 도움으로 현재 도로 완공까지 임시로 포장한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위원회가 저희 회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듯이 2011년에도 기업의 고충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치근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주세요! _ 조국선 (대전변동초 교사)

저희 학교는 제가 부임한 해부터 2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구시범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정, 책임, 약속, 절제, 정직, 배려의 6가지 청렴교육 덕목을 중심으로 청렴의 의미를 지도하고, 동료 교사들은 청렴교육 현직연수, 사이버연수, 전문가 초청연수, 현장연수 등에 동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학부모들도 사임당 학부모회를 조직해 청렴생활을 실천할 수 있었죠. 지난해는 한마디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청렴으로 똘똘 뭉친 한 해였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권익위로, 올해도 지금까지처럼 노력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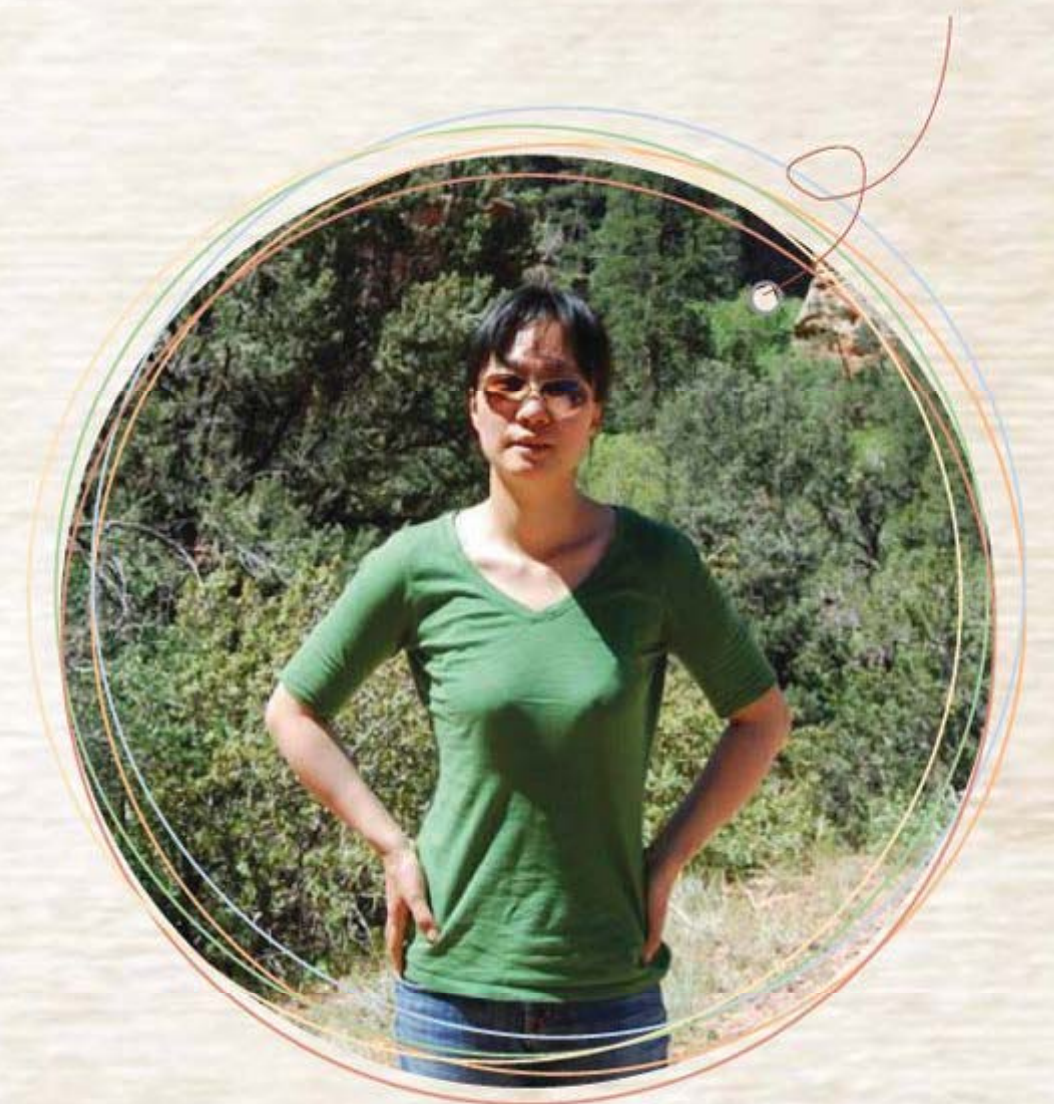


Relay Interview



외국인의 권익에도 관심을! _ 박수진 (방송작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내국인은 물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이나 권익까지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익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무시는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양이나 미국에서 온 백인들과는 달리 동남아 쪽 외국인들을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와 인권수호에 더 앞장서주면 좋겠습니다. 얼굴색은 달라도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며, 우리 역시 선진국에서는 인종차별을 당할 수 있는 아시안계라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소통하는 권익위가 되어주세요! _ 장한국 (대학생)

저는 권익위에서 대학생 청렴홍보단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엔 청렴이라는 주제로 홍보를 해야 한다가에 다소 힘이 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대 대학생인 지금이 아니면 다시 접하기 힘든 기회라 생각했고 “보람있는 활동을 해보자”라는 일념 하에 팀원들과 의기투합하여 활동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제가 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 국민은 권익위라는 기관이 어떤 역할과 활동을 펼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과 더불어 역할과 의의를 널리 알려주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은 여전하다.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을 막고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2008년 4월 시행된 이후 2년 9개월이 지났지만, 자신들에 대한 차별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고 하는 장애인을 찾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드러내 놓고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는 줄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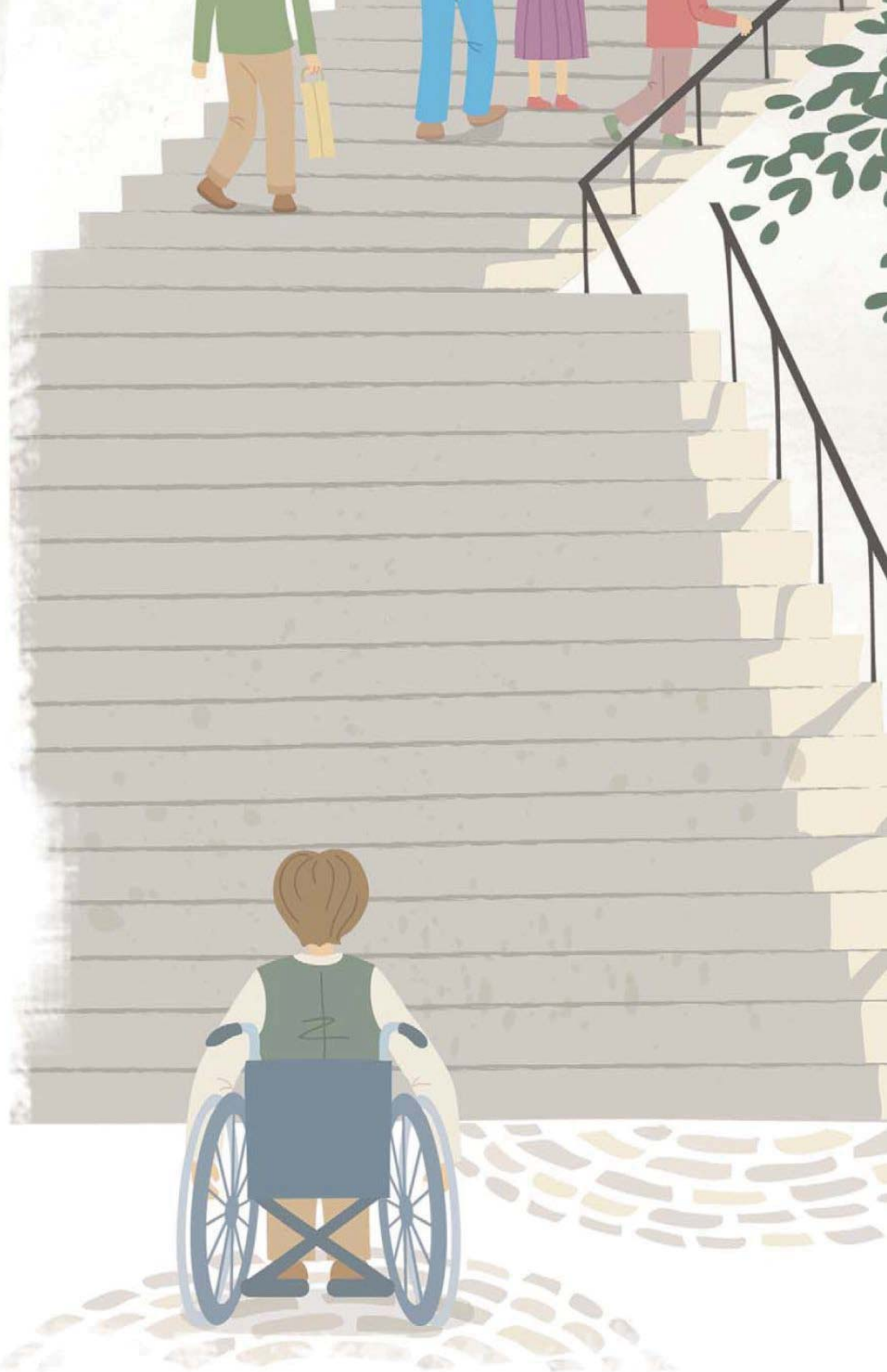
일상적 차별에 신음하는 장애인들

장차법 등 장애인 관련 제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일상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

“주위 손님들이 혐오스럽고 불쾌하다고 하네요. 저희 업소를 출입하지 말아주세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수유동의 ‘ㅅ’ 음식점. 음악가인 시각장애인 송울궁(39)씨가 어머니 송혜미자(68)씨와 육개장 세 그릇을 먹고 계산을 하려 하자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5년간 드나들던 단골 음식점이었다. 안 그래도 장애인이라는 ‘자격지심’에 늘 구석자리에 앉던 모자(母子)다. 남녀노소, 옷이 허름하건 아니건, 누구나 단돈 5,000원으로 즐겁게 어울려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었다. 그냥 서울의 평범한 가게. 그런데 그곳에서 장애인만은 예외였다. “손님들이 혐오스러워한다”는 것이 문전박대의 이유였다.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모자는 급히 식당을 빠져나와야 했다. 수치심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는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고 아들의 눈물을 닦아줬다. 구청으로 향했다. 억울한 일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구청 위생과 공무원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당과 통화를 마친 공무원이 내놓은 해결책은 “직접 가는 것은 안 돼도)포장이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가 찼다. 식당에서 한 번 구청에서 또 한 번 가슴이 스러졌다.





‘장차법’ 제대로 실효성 거두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차별 진정건수를 보면 2005년 121건, 2006년 113건, 2007년 239건, 2008년 695건, 2009년 745건, 지난해에는 2,402건으로 급증했다. 장차법의 취지대로 장애인 차별에 대한 ‘고발’이 늘어나 차별이 시정되고 나아가 근절된다면 좋겠으나, 법의 효과는 미미하다.

이를 바로 보이는 것이 장차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건수가 ‘제로’라는 점이다. 장차법 처벌조항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의도적이고 노골적인 차별행위를 했을 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지만 이런 처벌을 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도 지난해 4월 단 1건에 불과했다. 장차법 시행 이전에는 “이게 차별이냐?”했다가 장차법에 의해 인권위 권고나 법무부의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아, 이게 차별이었구나”하고 수긍하는 정도라고 하기에 민망한 결과였다.

처벌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인권위의 권고가 떨어지기까지 평균 100일 이상 시간이 오래 걸려 대부분 합의로 진정이 끝나버리기 때문이라고 장애인들은 지적한다. 장애인이 스스로 차별 현장을 기록하고 녹음하고 촬영하는 등 누군가 자신을 차별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했다. 그래서 차별을 겪은 장애인이 여건상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포기하는 사례는 매우 흔했다.

뇌 병변 2급 장애인인 현모(47)씨도 지난달 서울 망원동의 한 해장국집에 갔다가 모욕적인 일을 당했지만, 인권위에 진정하지 않았다. 휠체어를 타고 식당 입구에 다다르자, 식당 주인이 “아침이라 바쁘니 다음에 오라”고 출입을 거부했다. 현 씨는 “장애인은 제 돈 내고 밥을 먹기도 힘든 세상”이라면서 “휠체어 밀어주고 문을 열어주는 커녕 거지 취급을 하니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라면서도 “그런 걸 일일이 녹음하고 기록했다가 인권위에 진정하기도 그렇고...”라고 말끝을 흐렸다.

장애인 차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미미했고 일부 공무원들의 문제 인식은 부족했다. 정책제안·제도개선 등 본래의 업무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기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국민의 의식문제로 돌리기에 급급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공무원은 일상적인 장애인 차별에 대해 “국민들 의식 수준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은 학대·성폭행 등보다 심각한 범죄의 토양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작은 차별을 당했을 때 침묵했던 장애인이 학대당하고 성폭행을 당했을 때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밝히고 고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 언제든지 범죄자들이 이런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속만 끓을 뿐 ‘말 못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강력범죄를 일삼을 수 있다.

물론 장차법마저 없다면 장애인의 권리는 지금보다 더 열악했을 것이다. 하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보고 계단이 있는데 왜 못 올라가느냐고 떠미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다. 실효성 없는 법·제도와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대응은 차별로 한 맺힌 장애인 가슴에 두 번 못 박는 일이 된다. 장차법을 비롯해 장애인 관련 정책이 수혜자인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일에는 왕도가 따로 없다. 장애인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들으면 된다. 장애인이 뭘 필요로 하는지, 장애인의 심정이 어떤지, 묻고 정책에 반영하면 된다.

장애인 ‘재화용역 차별’ 진정 접수 건수

‘재화용역 차별’
식당·상점 등에서
물품 구입시 차별

55건
(4월 11일 시행
~12월)

2008년

154건

2009년

286건

2010년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다시 찾은 '웃음'

어느 날 내 집 앞으로 도로가 난다면? 도로건설이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는데도 정확한 정보가 없어 자기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지금도 전국을 누빈다.

“평생 농사일만 하고 ‘나라님들이 하는 일이니
어련히 잘 할꼬’ 하며 고개만 끄덕이며 살았다.
그런 그녀가 난생 처음
‘억울하고 힘든’ 일에 부딪혔다.”

돌담길과 대나무에 둘러싸인 고즈넉한 집 한 채. 설과 추석이면 서울에서 온 가족이 내려와 함박웃음을 지을 바로 그런 집 한 채. 전남 보성군 벌교읍 김상엽 할머니의 집은 80년대 농촌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곳이다. 김상엽 할머니 역시 친근한 미소로 귀여운 손자들과 놀아 주는 우리 주변의 흔한 어르신 중 한 분. 그녀는 이곳에서 일제시대, 6·25,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렇지만 한번도 힘들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평생 농사일만 하고 ‘나라님들이 하는 일이니 어련히 잘 할꼬’ 하며 고개만 끄덕이며 살았다. 그녀의 주름은 세파에 찌든 것이 아닌, 아름다운 세월의 흔적이었다.

그런 그녀가 난생 처음 ‘억울하고 힘든’ 일에 부딪혔다. 나랏일이 잘못되었다며 얼굴을 찡그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으로 도로가 난다면?

읍내로 마실을 나간 김상엽 할머니를 대신해 <국민권익>을 맞은 것은 아들 주윤호 씨. 지금은 ‘지나간 이야기’라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당시만 해도 그는 어머니를 힘들게 한 ‘그 일’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벌교에서 주암까지 도로건설공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어머니 집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나라님들이 어련히 잘 보상해주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집이 도로건설 용지 경계표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토지 일부만 보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답답한 심정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지, 민원을 어떻게 내는지도



몰라 그저 한숨만 내쉬 뿐이었다. 혼자 막막해하다 아들에게도 겨우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주윤호 씨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였다.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해 봤지만 정해진 일을 바꿀 수 있겠냐는 대답뿐이었다. 관련 기관에서 보낸 서한 내용은 다시 들여다볼수록 더 당혹스러웠다. 다시 측량을 요구했지만 ‘집은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매입할 수 없다’는 원칙만 반복해 말했다.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그때 불현 듯 TV에서 본 어떤 장면이 주윤호 씨의 뇌리에 떠올랐다. 버스 탄 할아버지부터, 임산부 가족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저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데 이 많은 질문을 고민하지 말고 이야기하라는 아나운서의 멘트가 인상 깊었던 광고였다.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민원안내 광고’를 기억한 것이다. 그는 바로 어머니를 다독이고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정말, 와줄까? 노심초사 기다린 국민권익위원회

주윤호 씨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10년 5월 국민



권익위원회에 연락을 했다. 그의 어머니는 ‘거기 민원을 낸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꼬’ 하면서도 아들의 듬직한 모습에 기대를 걸었다. 민원 접수 후 두 사람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기다렸다.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되면’이라는 걱정이 앞섰다.

얼마 뒤 찌는 듯한 더위를 뚫고 서울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 도로공사 관계자가 전남 보성군 벌교읍 바로 김상엽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정말 서울에서 왔다꼬야? 게다가 젊은 여자가 조사관으로 왔어라. 참 찬찬히 좀 봐주소잉. 우리 아들이 요 앞에 나가 있을께 쪼매만 기다리소. 내보다 우리 아들이 말을 잘한께.”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말을 들은 김상엽 할머니는 뭘 듯이 기뻐했고 연신 고마워했다. 잠시 후 찾아온 주윤호 씨도 놀란 모습은 마찬가지였다. 아직 어떤 이야기도 오고가지 않았지만, 더위 속에 멀리까지 직접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만으로도 그들은 감동했다. 그 모습에 조사관과 함께 온 이들 모두 숙연해졌다. 그리고 자리를 옮긴 주윤호 씨는 농사로 투박해진 손을 바지

에 쓱쓱 닦으며 그동안 이야기 못했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신청인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선 박해숙 조사관

“집 매수 보상과 관련하여 여러 곳에 문의를 했고 항의도 했지만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을 위한 측량을 한 뒤 토지 일부(6평 정도의 집터)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을 뿐, 주택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았고요. 건축물등기부에는 1939년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어머니는 그 전부터 이곳에서 지내오셨어요. 그런 집인데...”

담장역할을 하고 있는 대나무와 참 잘 어울리는 옛 토담집. 어머니의 손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주윤호 씨는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특히 집중해서 들은 건, 교통도로민원과 박해숙 조사관. 뜨거운 여름 서울에서 벌교까지 먼 거리를 오면서도 힘들기 보다는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그녀. 결국 김상엽 할머니의 일은 당시 교통도로민원 과에서 근무한 후 조사관으로서 그녀가 해결한 첫 민원이 되었다.

박해숙 조사관은 주윤호 씨의 이야기뿐 아니라 할머니의 생생한 이야기도 그날 함께 들었다.

“토공은 뭇이고, 보강토 옹벽은 뭇이당가? 원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어야 궁금한 것도 물어보제...”

무엇보다 할머니에게 서러웠던 것은 억울한 게 있는데 설명할 수도 없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궁금한 점’을 알게 된 박해숙 조사관은 피신청기관 담당자와 현장소장, 책임감리원에게 보강토 옹벽 공사 이유가 이 민원 주택만을 위한 것인지, 보강토 옹벽 공사비와 주택에 대한 간접보상비는 얼마인지, 보강토 옹벽공사 등 중장비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민원 주택이 오래된 만큼 주택균열 등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는지 꼼꼼히 따져 물었다. 그녀의 이런 적극적인 자세는 민원을 넣기는 했지만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보상이 힘들다는 답변만 받은 상황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던 김상엽 할머니와 아들 주윤호씨를 감동케 했다.

“그것 뿐이당가. 50m 줄자를 가지고 와서 도로용지 경계표시 깃대와 깃대를 진짜로 재보지 않소, 그러면서 주택이 오래되서 외벽에 가설치한 보일러실 등이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물어 보드랑께.”

민원이 해결된 후 김상엽 할머니는 만나는 동네 사람마다 이렇게 박해숙 조사관에 대해 끊임없이 칭찬했다고 한다.

지켜낸 권리, 되찾은 웃음

박 조사관은 김상엽 할머니를 방문하기 전, 2008년에 도로구역결정(변경)이 고시되었고, 2010년 4월에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2011년 8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임을 발견하였다. 박 조사관은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이 우선 문제라고 판단하고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직접 실사를 나온 것이었다.

“공사가 시작되면 노후 된 주택이 균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고

소음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게 분명했습니다.”

박 조사관은 이러한 실사 자료를 근거로, 시공사가 도로를 내기 위해선 할머니가 살고 계신 주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옹벽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한 집을 위한 옹벽 설치비용이 주택매입 가격보다 더 많이 든다는 주장을 하였다. 실제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공사 도중 집이 손상될 경우 2차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결국 조사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9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피신청인에게 국도건설공사 구역 밖에 위치한 할머니 소유의 건축물을 매수하라고 ‘의견표명’ 하였다.

“제가 요구했던 대로 익산지방국토청에서 집을 매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소식에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지만, 관계기관을 방문하면서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주셔서 처음 생각했던 데로 제가 요구했던 것이 당연한 저의 권리임을 확인받아 기뻐했습니다. 현재 과수원과 쌀농사를 하고 있는데 일에 대해서도 자부심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특히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신경을 써 주셨던 조사관님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되찾은, 아니 처음부터 그 자신의 것이었던 ‘권익’을 지킨 김상엽 할머니와 아들 주윤호 씨는 권익위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이들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발로 뛸 것이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부패’의 체감온도는 얼마일까? 또 실제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얼마나 될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해 이에 대한 결과를 얻었다. 우리 국민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50%가 넘지만, 실제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낮았다. 실제 비율은 감소했지만 국민의 인식 속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부패가 심한 것이다.



2010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 실제 부패경험률은 감소, 일반국민 인식은 여전히 높아
- “실제 부패경험률 2.7%, 부패인식 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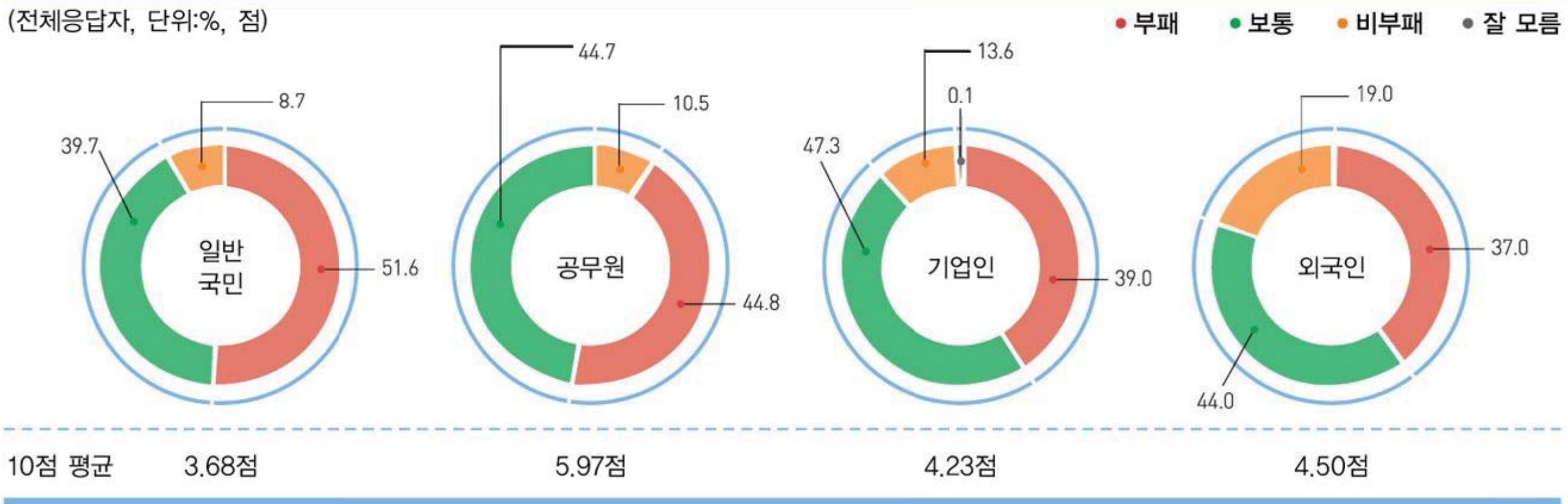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1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성인남녀 1,400명, 공무원 1,400명, 기업인 700명, 외국인 200명 대상으로 여론 조사 전문업체가 전화, e-mail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 2.62%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공무원 순이었다. 1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일반국민(3.68점), 기업인(4.23점), 외국인(4.50점), 공무원(5.97점) 순으로서 외국인

이 일반국민과 기업인보다 우리 사회를 더 청렴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의 경우, 2009년과 비교할 때 ‘부패하다’는 응답 비율이 5.0%(56.6%→51.6%)감소하는 등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개선추세를 보였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이 3.5%(40.5%→37.0%)감소하여 우리 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인식수준〉

(전체응답자, 단위:%, 점)



실제 부패경험률 2.7%, 부패인식 51.6%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금품·접대·선물 등을 제공한 경험은 2.7%에 불과하지만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은 51.6%로 나타나 실제경험과 인식 사이에 매우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인과 외국인이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실제로 금품·접대·선물 등을 제공한 경험(부패경험률)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패경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패경험률의 감소는 우

리 사회의 부패관행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게 금품·접대·선물 등의 제공동기로는 일반국민(28.9%)과 기업인(33.3%)은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 권유에 의해서'가 가장 많은 반면, 외국인은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30.0%)'가 가장 많았다. 일반국민의 경우 금품·접대·선물을 제공한 분야로 '건축/주택/토지' 분야가 31.6%로 가장 높았고, 외국인의 경우 교육(50%), 검찰, 출입국 관리 등 법무(40.0%)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았다.

〈공무원에게 금품/접대/선물 제공동기〉

(금품/접대/선물 제공 경험자, 단위:%)



부패발생 원인과 해결을 위한 과제

부패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사회분야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정당 및 입법분야(58.8%), 사법분야(29.1%), 행정기관(28.1%) 순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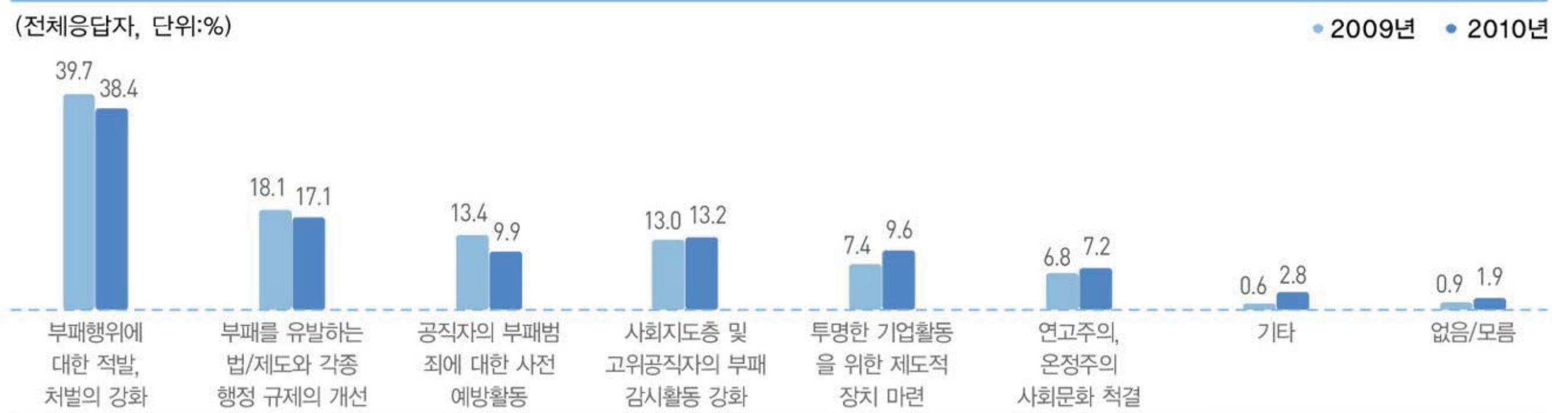
또한 우리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부정 부패에 관대한 처벌'을, 기업인·외국인·여론선도층은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더불어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들은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38.4%), '법·제도개선'(17.1%), '부패 감시활동 강화'(13.2%) 순으로 응답하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여론선도층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42.1%), '윤리의식 확립'(17.6%), '법·제도개선'(14.1%)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노력에 대해 일반국민과 외국인은 전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우리 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외국인·여론선도층 모두 '부패감소' 응답비율이 높았다.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전체응답자, 단위:%)



만화로보는 고충처리

임대주택 공급

도화구역 비닐하우스촌 이주대책

*인천 남구 도화동 무허가 건축물 거주민 50명





외국인 아내에 대한 우리의 오해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 며느리는 그 위치가 굉장히 취약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오로지 '며느리'의 역할에 충실해야 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은 후에도 자신의 직업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가 대부분이다. 결혼 후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남편이 가사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을 왜 도와준다고 표현하며 역정을 낸다. 이런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결혼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지인도 생겼다. 그러면서 이들이 묻곤 한다. “국제결혼은 어떨까?”

최근 국제결혼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을 찾아보는 일은 아주 쉽다. 특히 대도시 지역을 벗어나면 새로 결혼하는 남성의 2/5 정도가 외국여성과 결혼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하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어린 외국신부와 결혼하는 남성들은 한국여성보다 더 순종적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시작부터 우월한 지위를 점하는 것이 자신이 바라는 결혼생활이라고 믿는 일부 남성들에게 그 결혼에 대한 환상을 깨는 것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해주고 싶다.

국가별 남녀평등정도의 비교기준으로 언급되는 것이 여성권한척도(GEM)이다. 이는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국가별로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과정 참여도를 측정하여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좋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하

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베트남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중국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64위, 베트남 52위, 중국 57위로 상대적으로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여성의 권한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회에서 성장한 여성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고, 상대적으로 남편에 대한 실망도 더 클 수 있다.

순종적인 배우자를 바라며 국제결혼을 꿈꾼다면 그 꿈은 처음부터 버리는 것이 좋다. 부부는 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책임지거나, 군림하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서로를 키워주는 오랜 노력이 더해질 때 부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는 국가와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

국제결혼한 아내들의 공통적인 불만 중 하나는 한국남성들이 보여주는 결혼전후의 태도 차이이다. 결혼 전 한 시간의 국제전화도 불사하던 남편이 결혼 후 친정과의 통화를 놓고 “한국에서 전화는 용건만 간단히 3분 내에 끝내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몽골처럼 해물을 접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성장한 아내에게 출산 후 미역국으로 한 달 동안 몸조리를 권하는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나만의 시각에서 내가 가진 경험에 근거하여 상대도 역시 그렇게 받아들여줄 것이라는 오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결혼해체율을 보면서 다문화가족이 지니고 있는 위험요인 중 하나는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 사회의 국제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가 아니었는가를 반성하게 된다. 자신의 모든 기반을 포기하고 남편 하나를 믿고 따라왔던 외국 출신 아내들에게

우리는 이 땅의 여성들이 거부했던

100년 전의 가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다.



HAPPY ENJOYMENT

행복누리

우리 문화

우리 고유의 장식문화로 발달한 '매듭'

아름다움 그리고 사람

자연과 일상에 의미와 아름다움을 부여하다

법과 권익

중요 체크! 2011년 변경되는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건강한 삶

당신의 삶에는 긍정적 강박관념이 있습니까?

카메라에 비친 풍경

느림의 미학, 여유를 찾아 떠나는 경기도 기차여행

또 다른 세상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희망보고서
〈100년 전 대한제국 100년 후 대한민국〉

ACRC News

편집 후기

매듭은 오랜 세월 우리 삶과 함께 해왔다. 의복의 단추, 여인들의 노리개, 부채의 선추, 도포끈, 관복의 후수 등 복식류에서 쓰임은 물론, 가마 · 상여 · 영정(影幀) · 족자 등에도 이용됐다. 매듭은 각종 의기(儀器)와 기물(器物)에 장엄을 갖추고 아름다움을 더하는 장식이었다. 이처럼 우리의 매듭은 실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애용되어 왔으나, 생활양식이 서구화되면서 그 쓰임이 줄었다. 매듭에 종사하던 장인들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이렇게 점점 사라져 가는 우리문화, 이를 살리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자체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고유의 장식문화로 발달한 ‘매듭’





우리 언제부터 매듭을 지었나



매듭은 과장하자면 신석기시대부터 존재했다. 그때부터 인류는 식물의 줄기나 나무껍질, 짐승의 가죽을 묶거나 매어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수단을 얻었다. 또 꼬고 엮는 방법으로 유희를 추구하기도 했다. 돌도끼나 돌칼의 구멍에 끈을 꿰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생활용 매듭인 셈이다.

시간이 좀 더 흐른 삼국시대의 복식을 살펴보면 이미 이때 삼국 모두가 띠와 매듭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생활에 매듭 이용이 더욱 많아진 것이다. 특히 지위를 드러내거나 멋을 부리는 데도 매듭이 사용될 만큼 매듭은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장식이 되었다. 신라에서는 왕이 복식의 호사스런 장식을 금하고 각 신분별로 적절한 복식 형태를 제시하면서 허리띠와 장화끈 장식을 규제할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었다.

고구려와 백제도 각각 복식에 특징 있는 매듭을 사용했으며, 고려시대에는 왕이 타는 수레의 해가리개에 노란색 실로 짠 끈의 장식이 달렸다.

조선시대에는 더욱 매듭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실생활 전반에 널리 애용되었다. 조선 중기의 풍속 화가인 신윤복의 <미인도>만 보아도 장신구 찬 여인의 손에 끈이 있고, 매듭 위로 팔을 두어 매력적인 자태를 뽐낸다.

하지만 이후 근대화의 물결과 함께 우리 삶에서 매듭은 점차 사라져 갔고, 지금은 매듭 장인들의 손을 따라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다양한 매듭의 종류와 용도

매듭을 맺으려면 먼저 끈목이 필요하다. 끈목은 실을 합쳐 두 가닥 혹은 세 가닥 이상으로 꼬는 끈과 네 가닥 이상 여러 가닥으로 쳐서 짜는 끈으로 나눈다. 이렇게 짜는 끈을 다화(多繪)라 일컬었다.

다화는 그 형태에 따라 원다화(圓多繪)와 광다화(廣多繪)가 있다. 이중 모양이 아름다운 광다화가 우리 고대 복식에 많이 사용되었다. 궁중유물전시관과 이대 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등에 보관되어 있는 대자띠·분합끈 등의 유물에서도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궁에서 필요한 수공업품을 조달하기 위해 일정한 수의 장인을 궁과 관청에 두었다. 당시 장인들은 한성(漢城) 안의 궁과 관청에 속한 경공장(京工匠), 각 지방 관아에 속해 있었던 외공장(外工匠)으로 나뉘어 수공업품을 만들었다. 이처럼 소속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합사(合絲)·연사(鍊絲)·염색(染色) 등 세부 공정에 따라 장인들은 또 한 번 나뉘었다. 그만큼 수요가 많고 과정이 복잡했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기본형 매듭은 33종에 이르며, 그 호칭은 지방에 따라 다른데 공정에 참여한 이들이 많았던 만큼 각자 부름이 달랐던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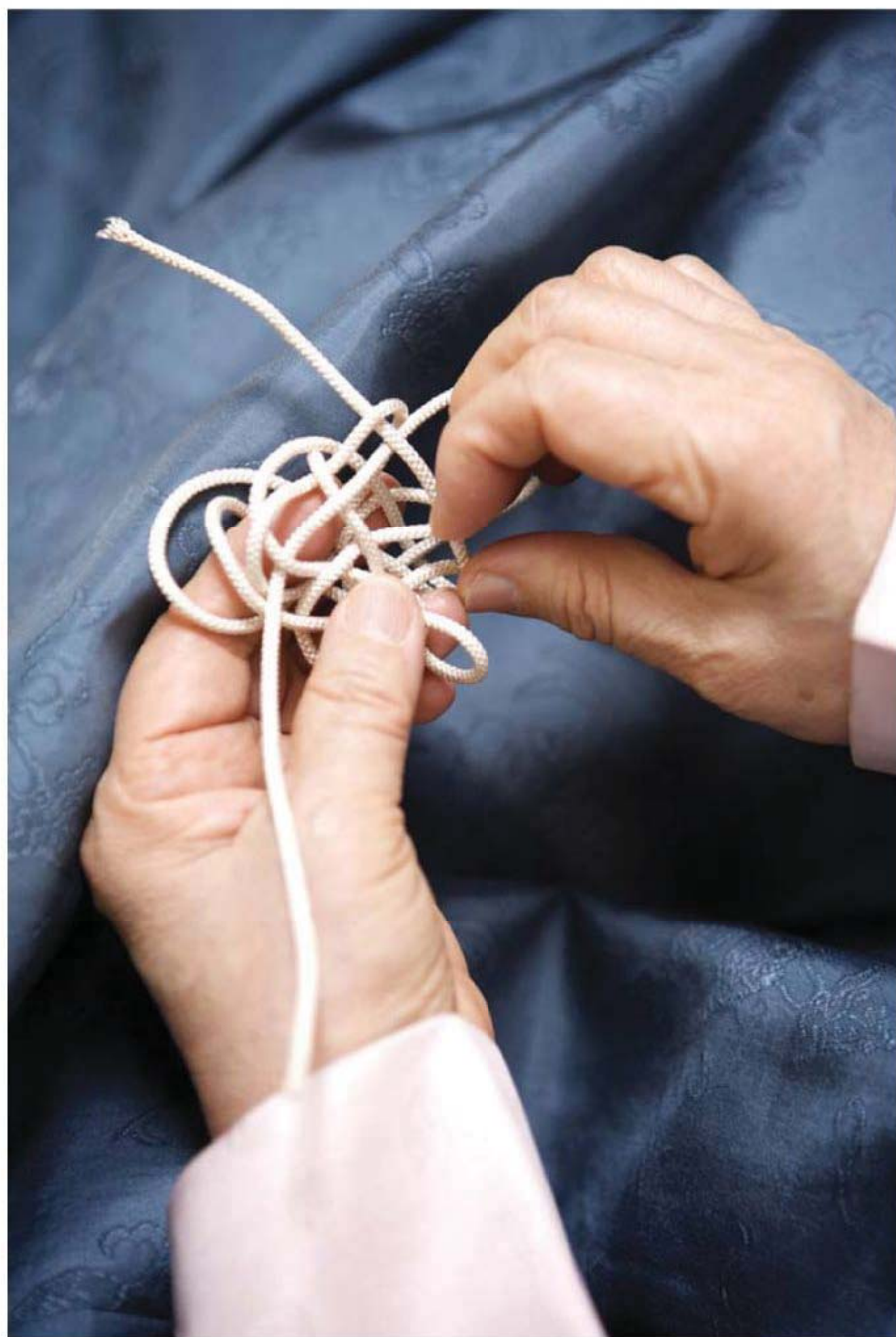


매듭장인, 우리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일념 하나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라이프스타일의 대격변을 겪게 된다. 여기에 일제시대에 겪었던 문화 말살 정책으로 많은 문화가 훼손됐다. 매듭도 이를 피할 수는 없었다. 기능 보유자들은 점차 줄었고, 사회적인 관심도 그만큼 적었다. 매듭을 배우려는 이도 알려 하는 이도 없었다. 이렇게 거의 끊기다시피 한 전통 매듭의 맥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곳곳이 '우리 문화'를 지키고자 한 장인들 덕분에 이어졌다.

정연수(程延壽) · 심칠암(沈七岩) · 강기만(姜基萬) 등이 그 장인들이다. 현재는 정연수 씨의 전수생만이 생업(生業)으로 그 맥을 이어오고 있었다. 정연수 씨는 1968년 12월 중요무형문화재 22호로 지정되었지만 1974년에 작고했다. 다행히 아내 최은순(崔銀順)씨와 유일한 전수생이었던 김희진(金喜鎭)씨를 통해 그의 '매듭'은 과거와 현재를 잇게 됐다. 현재 매듭장으로는 앞에서 언급했던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최은순, 김희진 씨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김은영 씨,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된 배순화 씨 등이 있다.

“ 거의 끊기다시피 한 전통 매듭의 맥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곳곳이 '우리 문화'를 지키고자
한 장인들 덕분에 이어졌다. ”



매듭의 전승과 개발은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매듭은 항상 보조적 역할이었다. 주인공이기보다 명품 조연이었다. 그러나 지금 매듭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훌륭한 장식 미술이 되었다. 해외에서 한국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은 우리 매듭이 달린 장식품을 기념품으로 가져간다. 옛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10대, 20대가 핸드폰 고리로 활용할 만큼 매력적인 면도 있다. 앞으로 연구개발 하기에 따라 개인의 품격은 물론이고 문화생활 전반의 수준을 높이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편리함을 추구해 기계제품과 공산품에 파묻혀 살게 된 현대인들은 반대급부로 자연과 수제품에 대한 향수를 느낀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매듭과 같은 수공예품은 분명 즐거운 그 무엇이다. 매듭의 맥이 끊어져 가는 상황에서 이를 복원·개발하고 즐기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노력과 인내, 그리고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관심'이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이 있는 이들이 늘어나야 이 같은 노력과 인내가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자부심과 관심을 갖고 많은 이들이 매듭을 배우고 있어 그 전망은 밝은 편이다. 또 정부차원에서 전승과 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한국 전통 매듭은 지속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꾸준한 관심이 없다면 지금 수준에 그치고 말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본다.



자연과 일상에 의미와 아름다움을 부여하다

interview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은 새로운 시각이나 색다른 시도에서 발견되곤 한다. 현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즐거움과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도전정신을 통한 신선한 아름다움의 창출이 그러하다. 그런 의미에서 미(美)는 주어지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발견하는 자의 능동적인 감정이다. 자연을 소재로 다시 자연을 표현하고, 일상 속 사물에 의미를 부여한다. 녹슬고 휘어진 못과 버려진 선풍기를 아름다움을 지닌 작품으로 창조한다. 바로 이재효 조각가의 작품 세계이다. 자연과 일상 속의 실체에 의미와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조각가 이재효 씨를 만나 보았다.

이재효 조각가

1965년 합천 출생

1992년 홍익대학교 조소과 졸업

-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
- 1998년 오사카 트리엔날레 조각부문 대상 수상
- 2008년 베이징올림픽 환경조각 작품전 우수상 수상
- 국내 다수의 갤러리에서 전시회 개최
- 서울의 미술회관에서 열린 '현대조각회전', 대만의 고웅시립 미술관에서 열린 '한국, 일본, 대만 조각 교류전', 일본에서 열린 '현대 조각전' 등 전시
- 2010 제22회 개인전 개최(윤갤러리, 서울)

직접 설계한 작업장에

작품과 사람이 어우러지다

경기도 양평의 한 작은 마을에 터를 잡은 조각가 이재효 씨. 이곳에 머물던 후배를 찾으러 갔다가 그대로 눌러앉아 자연을 벗 삼은 지 1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그는 조각가로서의 이력을 눈부시게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조용했던 시골마을에 변화의 바람도 불어넣었다. 조각가와 도예가 등 작가들이 모여들었고, 그의 작업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든든한 조력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담쟁이덩굴에 둘러싸인 그의 작업장엔 연신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각종 연장들과 작업을 기다리는 장작과 나무 뭉치들이 한데 쌓여 있다. 마치 목공소의 작업장처럼 분주하게 움직이는 공간에 그의 대표작품 나무공이 곳곳에 놓여 있다. 그 공간에서 이재효 조각가는 작업



반장처럼 종횡무진 움직이며 '작품'을 위한 지
시와 감독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나무를 소재로 해 규모가 크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죠. 작업을 위주로 하는
공간, 전시공간을 겸한 작업장을 나눠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평 500여 평에 3층으로 조성된 작업장은 그
가 용도에 맞도록 직접 설계했다. 자신의 작업
공간과 전시공간, 그리고 조각가인 부인 차종례
씨를 위한 작업공간 등으로 구성하느라, 완성까
지는 1년 반이나 걸렸다. 그래서일까 지금은 오
래 머물고 싶은 가장 애착이 가는 공간이라고
한다.

살림집을 포함해 각각 개별 공간 7개동이 내부
적으로 연결되도록 꾸몄으며, 무엇보다 훨씬 넓
어진 공간에서 마음껏 작업하고 마음대로 전시
할 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재

효 작가. 그 공간에서 이재효 작가의 새로운 시
선을 담은 작품들이 태동되고 있었다.

빛나는 연금술로 '조각대상' 수상

이재효 조각가는 나무, 못, 낙엽 등 자연을 소재
로 작품 활동을 해왔다. 그렇다보니 자연주의
작가로 분류되곤 한다. 전시장에는 나무를 소재
로 한 크고 작은 공 작품, 도넛 작품, 못을 소재
로 한 작품들이 채워져 있었다. 작품들은 소재
에 따라 각각 사뭇 다른 느낌을 주지만, 자연을
소재로 했다는 점과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 요소로
다가왔다.

특히 조각가로서 그를 세상에 알리고 입지를
굳히게 한 나무공 작품이 단연 호기심을 자극
했다. 나무를 까치집처럼 덩어리로 엮어놓고 불
인 후 자르고 깎아서 만든 작품이다. 그는 자연
을 소재로 또 다른 자연의 형상을 재현했다. 나





“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머리를 써서 끌어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평소에 느끼는 것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풀어나가느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라는 소재 자체의 형상이 작품에서도 그대로 느껴진다. 이후 공 모양은 반원 · 도넛 · 의자로 다양하게 발전했으며, 1998년 일본 오사카 트리엔날레에서 조각 대상을 받으면서 그는 단연 주목 받는 작가가 되었다.

“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머리를 써서 끌어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평소에 느끼는 것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풀어나가느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 바로 '자연'의 실체에 접근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상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 대상



을 자신의 감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렇게 보이는 것에 대한 상상을 멈추지 않은 결과물이 그의 작품이다.

“어느 날 그을린 나무토막에 물방울이 튀는데 반짝거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반짝거리는 느낌에 사로잡혀 이를 어떻게 살려낼까 궁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또 다른 테마인 못 작품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는 나무를 태우고 그 위에 못을 박아 구부린 후 반짝반짝 갈아냈다. 스테인레스 못을 반짝하게 가공하고 그을려진 나무를 대비시켜 은색과 검은색을 조합해 강렬한 이미지를 조성했다. 이것이 자연을 소재로 한 그의 연금술이다.

일상의 찰나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다

일상에서도 치열하게 이뤄지는 이재호 조각가의 미적 관심과 탐구의 결과물은 2층 전시장에

진열되어 있었다. 작품들은 일상의 잡다한 물건들이 그의 상상력과 손길을 거쳐 새로움을 더하고 있었다. 낡은 선풍기의 뚜껑은 그 곡선의 형태를 달리해 마치 몽크의 절규와 같은 표정으로 태어났으며, 펼쳐진 성경책은 모든 책장의 결과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움푹 패여 있다. 몽당연필은 악기가 되어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재미를 주는 작품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처음 보는 재료에 흥미를 느낍니다. 또한 쓸모없어 버려지는 것들이 다른 것으로 전환됐을 때 큰 감흥을 받아요.”

버려진 것들에 대한 애정이 배어있는 목소리를 통해 미미한 물건조차도 예사롭지 않은 시선을 던지는 작가의 치열한 의식과 근성을 만날 수 있었다. 작업장에선 녹슬고 휘어진 못 하나도 작가의 해안을 통해 웃음과 놀라움을 자아내는 오브제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저에게 있어 조각이란 그냥 생활이에요. 적

성에 맞는 직업이자 자연스러운 삶의 행위입니다.”

일상과 작업 구분 없이, 일상의 순간순간 찰나에서 숨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하는 작가의 치열한 심미안은 삶에 대한 애정, 그리고 위트와 여유로 표현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걸어왔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해 십년 후에는 해외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이어가기 위한 시선과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 2010년 한 해에만 5회의 개인전과 다양한 전시회를 성공리에 마친데 이어, 해외에서 열릴 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자연과 일상 속 사물들에게 숨은 의미를 찾아주고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그의 작품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중요 체크! 2011년 변경되는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노동관계 법령은 회사와 직원 양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약자인 근로자가 권리를 찾으려면 이 법령을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2011년, 과연 어떤 것들이 변하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국민권익>에서 알아보자.

익'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 핵심이 되는 다음 사항들만이라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자.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받는다!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 규정이 바뀌었다. 이제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만약 2011년 12월 1일이 재직 5년째인 사람이 있다면, 이날 퇴직하면 5년치를 받는 것일까?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만약 월 평균임금이 200만원이었다면 1년분인 100만원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2010년 12월 1일 법령이 바뀐 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되기 때문. 중요한 것은 이 전까지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받을 수 없었던 퇴직금을 이제는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법령이다. 참고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 계산에서 1년분의 퇴직금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아닌 15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받게 된다.

매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고용노동부소관 법안만 수십여 건. 법안소위에 미상정된 법안까지 포함하면 노사문제 전문가들조차 그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장 이러한 변화를 잘 알아야 할 일반 근로자들이 그 내용을 다 숙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자신의 '권

● 2011년 꼭 알아두어야 할 변경되는 노동법령

- 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규정 적용 : 2010년 12월 1일 이후
-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 2011년 1월 1일 이후
- 고용산재보험료 매월 납부 : 2011년 1월 1일 이후
- 주 40시간제 20인 이하 사업장 적용 : 2011년 7월 1일 이후

- 복수노조허용 : 2011년 7월 1일 이후
- 육아휴직 급여 월 최고 100만원(통상임금의 40%) 지급 : 2011년 1월 1일 이후

주 40시간제 확대, 언제부터 적용될까?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오는 2011년 7월 1일부터는 주 40시간제가 도입된다. 근로시간은 4시간 줄어들고, 연차휴가는 1년에 10일(9월 이상 출근 시)에서 1년에 15일(8월 이상 출근 시)로 늘어난다. 단, 연차휴가 일수 가산은 1년에 1일 부여되던 것에서 2년에 1일로 줄어든다. 이때 주 40시간제가 된다고 해서 주 44시간 근무 시의 통상시급과 임금수준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쉬고, 열심히 일할 권리는 근로자 스스로 지켜야 한다. 주 40시간제가 확대되지만 계속근속 연수가 1년 미만 근로자들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익년도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생긴 대신 월차휴가가 폐지되는 점도 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생리유급휴가가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하는 무급생리휴가로 변경되니 유의해야 한다.

2011년, 최저임금이 달라진다

물가인상과 사회 수준 향상에 따라 최저임금의 기준도 달라진다. 2011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4,320원으로 8시간 일당은 34,560원, 주44시간(월 226시간)제 사업장 월급은 976,320원, 주40시간(월 209시간)제 사업장 월급은 902,880원이 된다. 이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 항목으로서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면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을 말한다.

육아휴직 급여, 월 최고 100만원

2010년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원씩 정액이었다. 그런데 이 금액도 2011년부터는 큰 폭으로 변동된다. 2011년부터는 수령자가 통상임금의 40%(최고 100만원, 최저 5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변경된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 1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다면 통상임금인 200만원의 40%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인 월 80만원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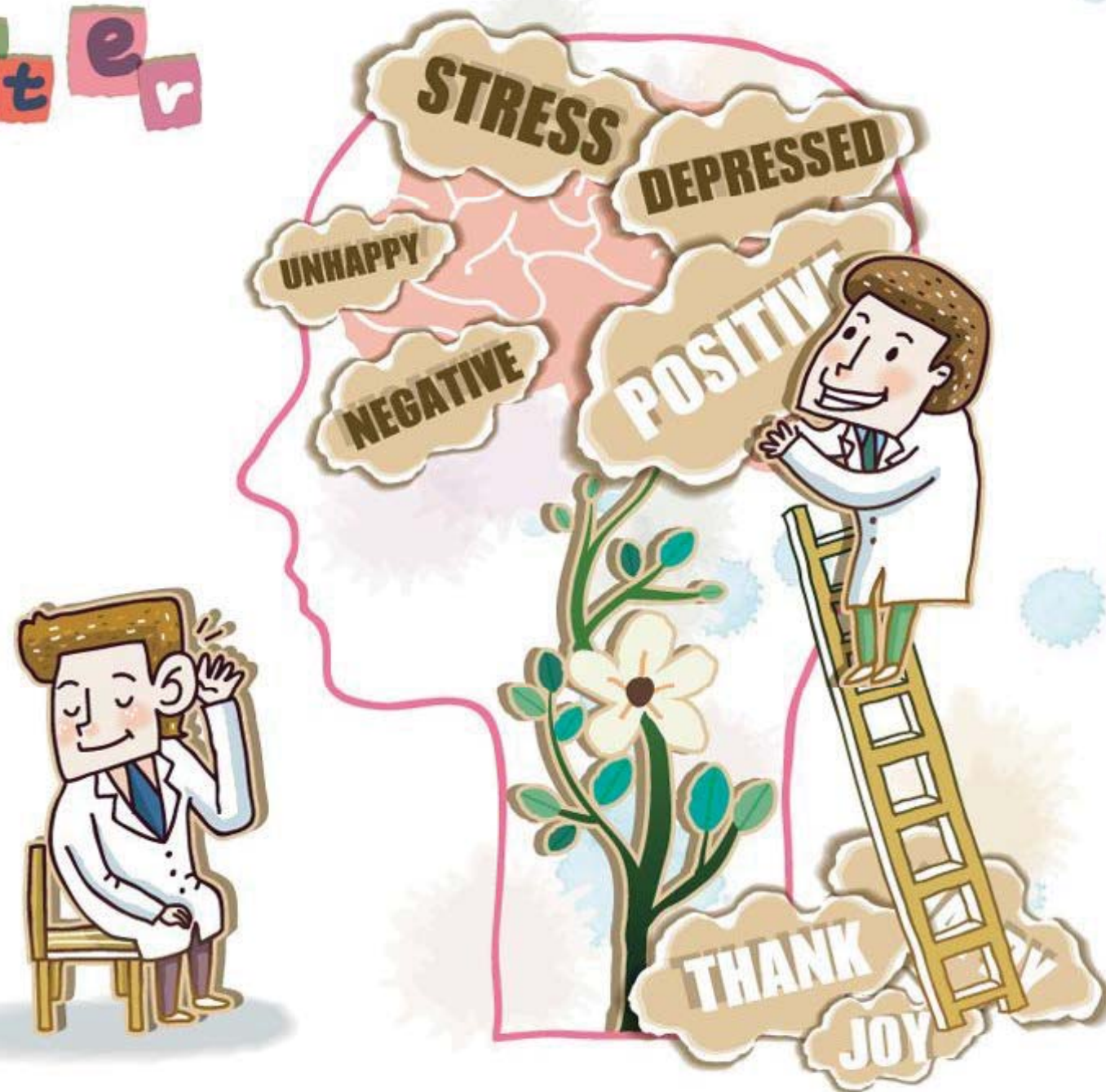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받는 육아휴직급여에서 15%가 사업장에 적립된다. 즉 80만원에서 12만원을 제외한 68만원이 실 지급받는 금액이 되는 것. 그러나 적립된 72만원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꼭 확인하도록 하자. 예를 든 대로 설명하자면 2012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 근무할 경우 수령하게 된다.

이밖에도 새롭게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 변경되는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기준과 납부방법은 바로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만 근로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다. 물론 이렇게 바뀌는 정보들을 일일이 새로 알고 기억해야 하는 일이 어렵게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주변의 이익을 가져오는 일이고, 내 권익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자.

당신의 삶에는 긍정적 강박관념이 있습니까?



공무원인 K씨는 물건의 정리정돈에 대한 강박관념이 매우 강합니다. '물건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꼭 제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지나치다보니 책도 자신의 분류대로 정확하게 꽂혀 있어야 하고, 자신이 정해 놓은 기준선에 맞춰 책이 반듯하게 놓여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사전이나 두꺼운 책의 끝 부분이 조금이라도 접혀 있으면 이를 일일이 펴 정도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씁니다. 문제는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가족들에게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책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져 있거나 집안의 물건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정리정돈 되어 있지 않으면 화를 참지 못합니다.



독이 되는 강박관념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는 누구나 '~해야 해' 혹은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크고 작은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지나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아무리 아파도 학교는 가야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생각에는 성실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긍정적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병을 키울 수도 있고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작은 실수도 해서는 안 돼'라는 강박관념이 크다고 해봅시다. 이 역시 일을 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보다는 실수가 두려워 도전조차 하지 않는 회피로 이어지기 쉬울 것입니다. 이렇듯 지나친 강박관념은 '늘, 항상, 결코, 언제나, 모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와 같은 절대적인 수식어가 따라다니며 융통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강박적 생각이나 행동에 불필요하게 집착함

으로써 삶을 위축시키고, 주위 사람들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부추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나친 강박관념은 삶을 갉아먹는 일종의 정신적 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해 매사에 융통성이 없고, 타인에게도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여 사회적 역할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인간관계에 문제를 초래하게 되면 강박성 인격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 날개가 되는 긍정적 강박관념

그러나 과연 강박성향이 늘 독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자기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강박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교적 강한 자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고, 자기통제력을 발휘하여 정확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며, 자신의 관심사 외에 다른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단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성향이 있기에 한 분야에서 깊이를 더해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보이는 강박성향은 인격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성장의 발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안 하면 노래가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항상 노래연습을 하고 있다"는 가수 조용필의 이야기처럼 프로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버리고 온전히 그 배역이 되어

“사람이 벽(癖)이 없으면 쓸모없는 사람일 뿐이다. 대저 벽이란 글자는 질(疾)에서 나온 것이니, 병중에서도 편벽된 것이다. 하지만 독창적인 정신을 갖추고 전문의 기예를 익히는 것은 왕왕 벽이 있는 사람만이 능히 할 수 있다.”
- 박제가의 <백화보서 百花譜序> 중에서 - ”

야 한다’는 엄격한 연기관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뛰어난 연기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강박성향과 강박관념은 독창적인 자신의 세계를 이루고,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끔 하는 삶의 날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가히 긍정적 혹은 생산적 강박관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 강박관념과 긍정적 강박관념을 구분하라

강박관념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부정적 강박관념과 긍정적 강박관념을 구분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정적 강박관념이 아니라 긍정적 강박관념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 강박관념은 결과가 아닌 과정, 그리고 목표가 아닌 가치를 중시하는 마음입니다. 즉, ‘꼭 성공해야 해’가 아니라 ‘최선을 다 해야 해!’와 같은 마음입니다. 과정에는 엄격하지만 결과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 하지만 그럼에도 안 된다면 그 역시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표보다는 가치를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법관이 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면 법관이 되는 것은 목표이

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목표에 대한 강박관념이 심한 사람은 어떻게든 법관이 되는 데만 초점이 맞추어져 법관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법관이 되기 전부터 자신의 처지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관심을 보일 것이고 설사 법관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실현할 또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긍정적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좌절을 이겨낼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긍정적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긍정적 강박관념이 자신을 통제하는 데 맞춰져 있지 결코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키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강박적 관념이나 성향이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위협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긍정적 강박관념은 자기완성의 욕구, 열정, 자기신뢰라는 긍정적 정신에너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부정적 강박관념의 바탕은 불안이나 초조, 분노, 두려움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내가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와 같은 불안이나 두려운 마음에서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쉽습니다. 즉, 긍정적 강박관념은 스스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에 가깝지만, 지나친 강박관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당위나 방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강박관념을 넘어서라

아무리 긍정적 강박관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그 뒤편의 그림자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 강박관념 역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삶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우리를 틀에 가둬 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완성을 추구하려는 사람이라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강박관념을 넘어서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있는 힘껏 표현하고 독창적 세계를 구축하는 것은 강박관념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나로 살아가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을 넘어 즐길 수 있는 경지에 올라설 때 가능한 일이니깐요.





느림의 미학, 여유를 찾아 떠나는 경기도 기차여행



우리의 일상은 시속 300km의 KTX 고속열차만큼 빠르게 달리며 발전하고 있다. 빨라진 속도만큼 삶은 풍요롭고 편리해졌지만 주변과 자신을 돌볼 여유는 줄어들었다. 이제 전력질주로 달려온 일상에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면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느리지만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기차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경기도 안에서의 짧은 여행만으로도 삶의 비타민 같은 여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는 과거 여행

경원선

총 길이 222.7km에 이르는 경원선은 1914년 서울과 원산을 잇기 위해 건설됐지만 분단 이후에는 용산역~신탄리역 간의 89km만 운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도심에서 동두천까지 복선전철이 생기면서 동두천역~신탄리역 구간에서만 옛 향수를 담은 통근열차로 기차여행을 즐길 수 있다.

동두천역에서 매시 50분에 떠나는 경원선 열차의 정차역들은 오래전에 지어진 역사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준다. 또 각 역사마다 옛 조상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가 많아 소박한 간이역들이지만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선사시대 선조들과 만나는

한탄강역

한탄강역에는 역장이 없다. 이곳에서는 표를 끊는 모습을 볼 수 없다. 그저 오는 기차를 타고 종착역에 가서 차비를 내면 된다. 또 기차에서 내린 이들도 표를 보여주거나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마치 '경제'라는 것이 없던 고대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느낌은 비단 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탄강역에서 나와 도보로 7분 정도 걸으면 현재 대표적인 국내 구석기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곡리선사유적지를 만나볼 수 있다. 사적 268호로 우리나라 구석기 연구에 전환점이 된 소중한 문화재다. 유적지하면 지루하고 재미없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곡리 선사유적지의 입구에 도착해 더벅머리를 한 귀엽게 생긴 구석기인의 비석을 마주하면 친근감부터 생길 것이다. 그리고 오솔길을 따라 드넓게 펼쳐진 잔디밭을 걸으며 띄엄띄엄 놓인

구석기 시대의 움막들을 보면 소박한 생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또 유적지 곳곳에는 옛날 사냥하는 모습이나 생활상을 재현한 동상이 있어 더욱 생생한 모습을 보여준다.

다른 유원지처럼 화려한 볼거리나 색색의 조형물은 없지만 소박한 유적지와 한탄강변을 따라 걷는 상쾌한 산책로가 담백한 여행의 재미를 선물한다.

우리 고유의 정(情)이 넘쳐나는 곳

신망리역

경원선을 타고 한탄강역에서 다시 전곡, 연천을 지나면 신망리역이 나온다. 처음 신망리역에 내리는 사람은 '이곳이 기차역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대합실 대신 플랫폼에 세운 천막 밑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역장은 보이지 않고 아주머니 한 분이 분주하게 표를 팔고, 확인하는 모습. 이때 동네 아는 주민을 만나면 반가운 인사와 함께 표 확인 없이 무조건 통과다. 허술해 보이긴 하지만 Give&Take가 정확한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이 넘쳐난다. 역사 안으로 들어가면 더 놀라운 풍경이 펼쳐진다. 대합실 한쪽 벽이 책으로 빼곡히 메워져 있는데 어림잡아 5천여 권이 넘는 듯하다.

이와 같은 신망리역의 모습은 2009년 1월 낮은 경제성으로 폐쇄 위기에 몰렸던 역을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탄생시킨 결과다. 이로써 신망리역은 농사일로 지친 지역 주민들에게 쉼터이자 이야기 마당이 펼쳐지는 사교의 공간이 됐고, 삭막한 도시에서 벗어나 잠시 간이역에 들른 손님에게는 푸근한 시골의 정을 느끼는 고향집 같은 곳이 됐다. 지친 일상에 삭막해진 마음을 가슴 따뜻해지는 정으로 어루만져주는 신망리역은 일상의 여유를 찾아 여행길에 나선 사람들에게 더없이 좋은 휴식처가 될 것이다.

• 경원선



Tip/

전곡리선사유적지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28-1

문의 : 선사유적관리소 031-832-2570

운영시간 : 24시간 운영 / 연중무휴

찾아오는 길 : 경원선 한탄강역에서 하차 후 도보로 7분 거리

Tip/

신망리역문고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상리 100

문의 : 1544-7788

찾아가는 길 : 신망리역 내 위치

Tip/

고대산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문의 : 관리사무소 031-834-3064

/ 연천군청 031-834-2211

찾아오는 길 : 경원선 신탄리역에서 하차 후 도보로 10분 거리, 자가 이용 시, 3번 또는 37번국도 이용하여 전곡도착-연천-신탄리역-고대산



고대산 전경

분단의 역사를 품은

신탄리역

동두천에서 경원선을 타고 47분을 달리면 신탄리역에 도착한다. 신탄리역은 경원선의 종착역이지만 사실 간이역이라고 할 수 있다. 분단되지 않았다면 원산이 종착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휴전선과 불과 4km 거리에 위치하여 분단의 아픈 현실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신탄리역은 기차로 갈 수 있는 최북단역이다. 역사에서 북쪽으로 500m쯤 가면 그 유명한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철도종단점 표지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탄리역은 잘린 철도선이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아픈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한다.

신탄리역이 분단의 역사를 안고 있다고 해서 여행 내내 무거운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 실제로 봄과 가을이 되면 신탄리역은 청정한 고대산 등반을 위해 찾아오는 등산객들로 붐빈다. 고대산은 신탄리 지역에서는 '큰고래'라 불리는데, 그 유래는 자세하지 않다. 옛 선인들의 예언적인 지명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의 전설이 있는 한국의 삼신산의 하나로 해발 832.1m의 멋진 등산로가 형성돼 있는 곳이다. 연천군과 철원군 사이에 있는 고대산 정상에서는 철원평야와 북녘 땅을 볼 수 있고 신탄리역에서 산행들머리까지 걸어서 10여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철도 산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번 봄, 가족이 함께 역사를 공부하며 건강을 위한 나들이 장소로 신탄리역을 찾아가보길 바란다.

경의선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여행

경의선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로 과거 경부선과 함께 한반도의 주요 종관철도로서 수많은 지선이 연결되어 운수 교통량이 전국 철도 중 가장

많았던 대동맥 같은 선로였다. 분단의 아픔으로 현재는 서울역에서 도라산역까지 55km의 구간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 구간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서울역~문산역까지는 광역전철이, 문산역~도라산역까지는 통근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경의선을 따라 떠나는 기차여행은 경의선에서만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 의미를 더한다.

아픔과 희망이 공존하는

임진강역

경의선의 대표 관광지지는 바로 임진강역과 주변 일대이다. 임진강역은 남북철도 연결사업으로 세워진 최초의 역으로 민통선 300m 전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이유로 임진강역에 가면 안보관광지역을 둘러볼 수 있다. 임진각과 북한기념관, 각종 기념비 및 통일공원, 제3땅굴, 통일촌마을 등이 있는 임진각 국민관광지는 한해 2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다. 하지만 통일전망대에 올라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북녘 땅을 보노라면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결코 가벼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분단의 아픔과 함께 하루 빨리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차분해지는 마음은 꼭 국가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바쁘게 달려오기만 한 일상에 잠깐의 명상을 제공한다.

느림의 미학은 앞만 보고 빠르게 달리며 돌보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과 나를 살피고, 각박해진 마음에 감성을 채우는 것이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기차여행은 그 미학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다. 조금 느리기 때문에 주변의 아름다움을 돌아볼 수 있고, 각 역마다 간직하고 있는 추억 이야기를 따라 여행하며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기차여행. 요즘 자신이 너무 각박해졌다 느낀다면 친구나 가족, 연인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Tip/

임진강역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325-1

문의 : 임진각관광안내소

전화 : 031-953-4744

찾아가는 길 : 임진강역에서 안보관광지 셔틀버스 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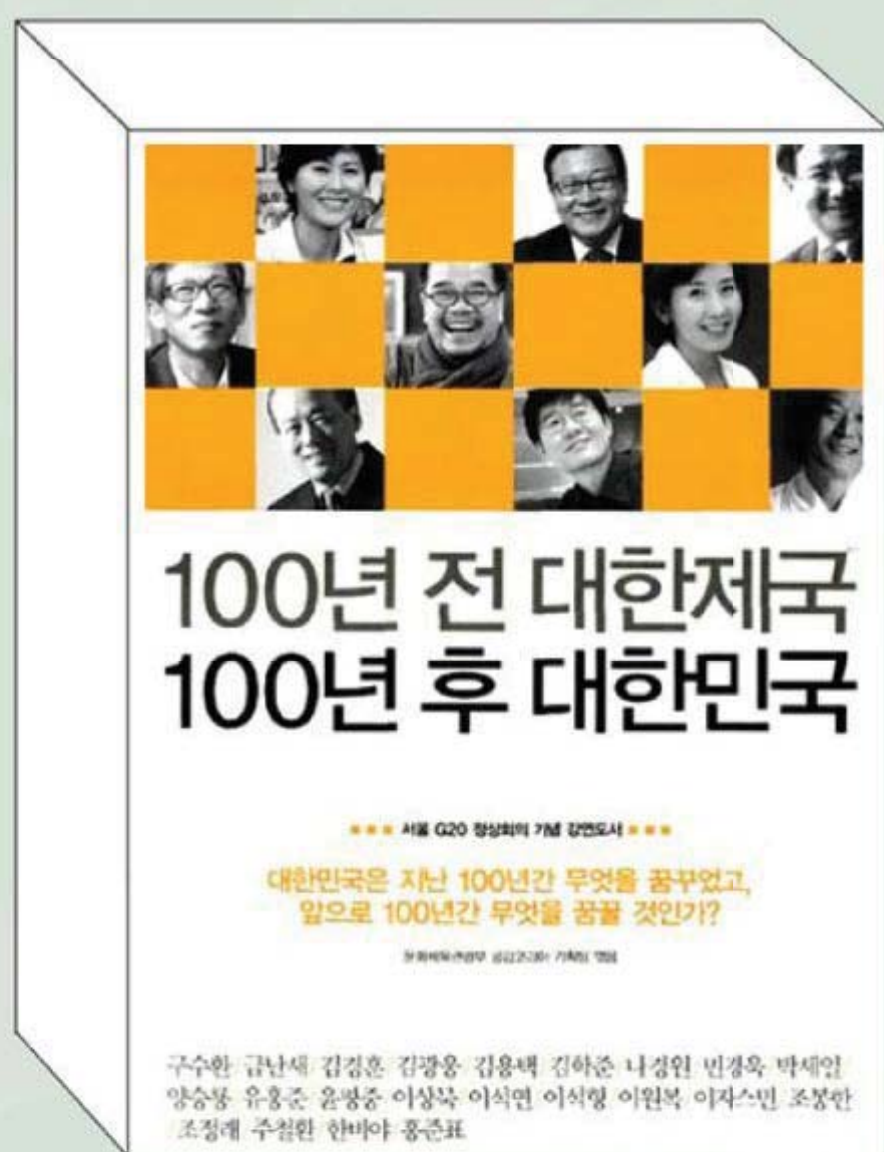
임진각에서 북녘을 바라보는 여행객

경의선





01 경원선 최북단역인 신탄리역에 도착한 여행객들 02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입구 03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04 임진각 평화상징 조형물 05 신탄리역 전경 06 임진강역 전경 07 신탄리역 플랫폼을 걷어가는 마을 주민들과 여행객 08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내부 전경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희망보고서 100년 전 대한제국 100년 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공감코리아 기획팀 지음 / 마리북스 / 340쪽 / 15,000원)

1인당 국민소득과 비례하여 행복지수가 올라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일까? <100년 전 대한제국 100년 후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밝히고,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해법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은 행복하십니까?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대한민국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부러움을 샀다. 변방국에 불과하던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의젓한 의장국가로 나서자, 대한민국 경제 성장기가 다시 주목을 받았다.

100년 전 우리나라는 열강들의 잦은 간섭을 받았고 35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로 살았다. 어렵사리 해방을 하면서 두 동강으로 나뉘었고,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그리고 3년 후, 상처와 시련으로 얼룩진 빈털터리 대한민국으로 덩그러니 살아남았다. 해외의 원조를 받아야만 하는 가난한 나라, 하지만 대한민국은 좌절하지 않았다. 바닥을 치고 오히려 더 치열하게 달렸고, 탄력을 받아 가파르게 상승했다. 광복 65년이 지난 지금, 세계 무역규모 13

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되었다. 한강의 기적은 이미 이루었고, 이제는 목표를 바꾸어 세계의 정상상을 향해 달려가자고 한다. 그 전에 잠시, 대한민국에게 물었다.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OECD 국가 중 삶의 만족도 꼴찌, 자살률 1위”라는 충격적인 대답이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난날 고된 배를 주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국가를 향해 달려왔기 때문이리라. 만일 국민의 정서나 마음의 풍요로움이 반영된 ‘잘 사는’ 국가를 지향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그들의 아픔을 걷어내고 희망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그들은 생각보다 더 깊다. 짧은 기간에 산업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빨리 성장하면 성장통이 따를

Republic of Korea hopes the Report

수밖에 없다. 성장에 가리워진 그들은 굉장히 깊고 넓다. 빈부격차, 교육문제, 비정규직 문제, 자살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양승룡 교수)

경제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은 다수의 희생을 요구했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는 사이 성장의 그늘에서 흐느끼고 있는 설움을 우리는 미처 돌아보지 못했다. 아니, 그냥 지나쳐 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다. 우리의 목표를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달려만 오느라 돌아보지 못한 멍들고 다친 곳부터 치료해주어야 한다. 머리만 보기 좋게 키워 가분수로 만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고루 살찌우는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데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걸까.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해 10월, 이 시대를 대표하는 각계 22명의 지성인들에게 대한민국 선진화에 대한 길을 물었다.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과 혜안으로, 한 달간 광화문 해치광장에서 강연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 <100년 전 대한제국 100년 후 대한민국>으로 엮었다.

선진국(先進國)의 해법은 선진 ‘국민(國民)’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저명인사들이 제시한 해법에는 공통점이 있어 보인다. 그저 ‘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닌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면,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흙 속에 깨를 심을 때 깨의 싹이 너무 연약해서 서너개를 심으면 흙을 못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수십 개를 함께 심는다. 그러면 이들이 힘을 모아 흙을 밀어내고

세상으로 올라온다.” (김용택 시인)

또한 다수의 약자인 국민들이 절망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위를 돌아보고 늘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기업이 잘돼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맹신을, 환상을, 공상을 터무니없이 가지면서 기업들이 저지른 경제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무관심했다. 공무원만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도 직무유기를 해왔다. 승자독식에 부끄러워하고 분노할 줄 알며, 집단적인 부정부패와 만성적인 부익부 빈익빈에 분노할 줄 아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조정래 작가)

또한 네트워크의 발달로 세상이 변하고, 삶의 방식이 변하고, 일하는 방식이 변하는 미래 과학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존과 상생, 나눔을 실천하는 의식의 변화도 이야기 하고 있다.

“국제구호분야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는 88올림픽이 열린 직후인 1990년까지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았다. 우리에게 도움을 준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줄 나라에도 눈길을 돌려야 할 때다” (한비야 국제구호활동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변화를 원하고 준비가 되어있다면 희망은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선진국의 길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개인이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성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권익위 현장조정 “군사보호구역 확장 않고, 체육시설 건립” 합의

부대 신축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주민과 군부대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주민 52가구 지역주민들은 포병부대 신축으로 인해 지가하락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실시하여 최종 중재안을 도출하였다. 지난 1월 27일 오후 2시 강원도 원주시청에서는 권익위가 주재하는 현장조정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군은 포병부대를 신축하더라도 부대 외곽 경계선 밖으로 군사보호구역을 확장하지 않고, 원주시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건립하며, 마을주민들은 ‘부대 신축 반대’ 현수막과 농성천막을 철거하기로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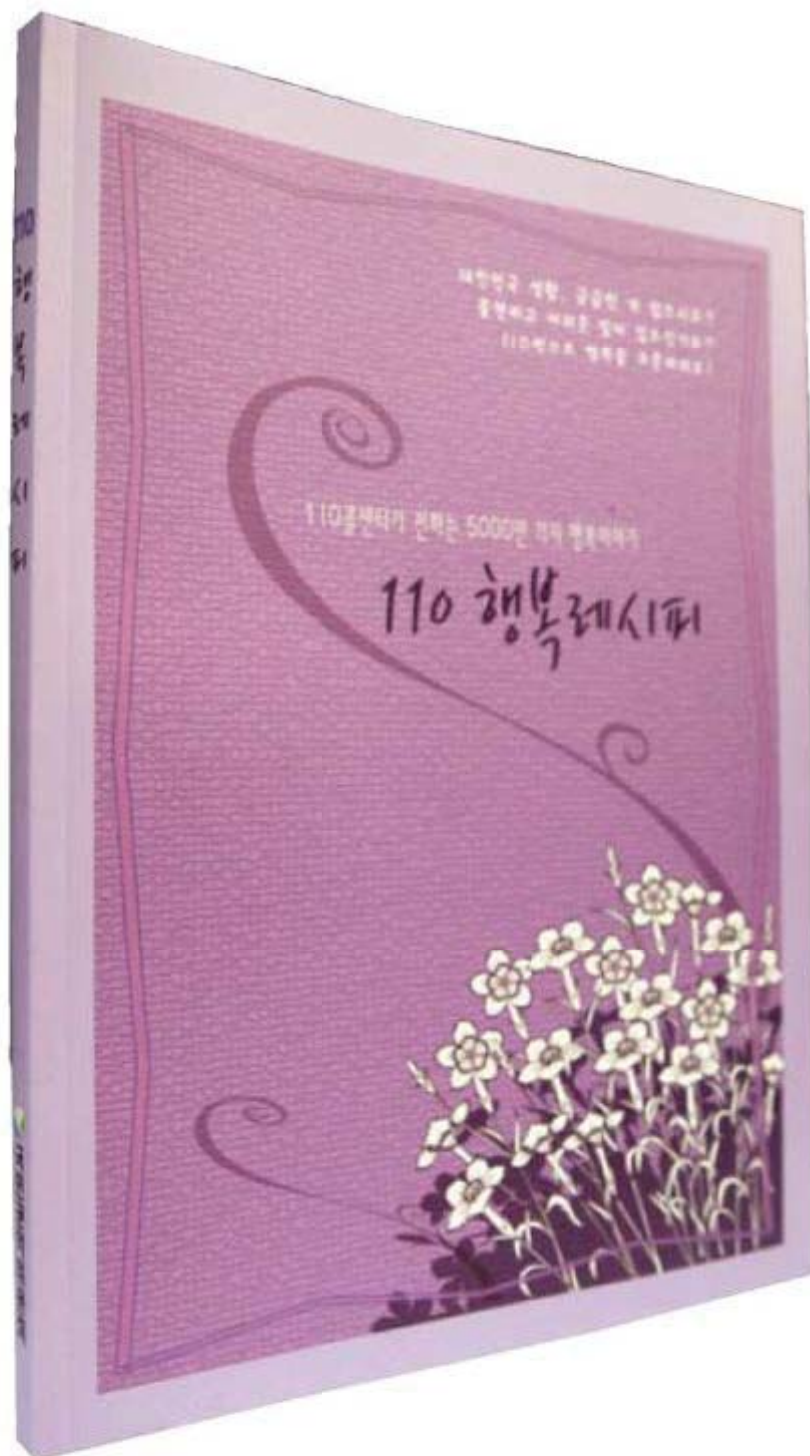


청렴교육 애니메이션 「좌충우돌 뽕치네 집」 방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8일부터 1월 29일까지 4주간 지상파 EBS를 통해 초등학생 대상 청렴교육 애니메이션 「좌충우돌 뽕치네 집」을 최초로 방영했다. 웃음과 교훈을 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청렴의식을 심어주고자 기획된 「좌충우돌 뽕치네 집」은 청렴 명명이 ‘뽕치’의 시선으로 초등학생 청청이, 홍홍이가 겪게 되는 여러 부조리한 상황들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그렸다.



초등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이 애니메이션은 2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 40분부터 11시 10분까지 EBS를 통해서 재방영중이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청렴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작품성 있는 교육 애니메이션을 꾸준히 제작해 학생들의 청렴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110콜센터, 3년간 상담사례 '110행복레시피' 출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대표전화 110번 상담원들의 민원상담사례를 모은 <110행복레시피>를 출간했다.

<110행복레시피>는 일반 행정민원부터 생계침해형 범죄 신고상담까지 다양한 상담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획되었다. 또 정부기관의 민원 사례뿐만 아니라 국민이 제안하는 제도개선 아이디어, 110상담사들이 경험한 황당 상담사례도 같이 담았다. <110행복레시피>는 전국 지역주민센터와 문화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정부대표전화 110번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상담은 물론,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상담(국번 없이 110, 씨토크 영상전화 서비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10홈페이지(www.110.go.kr)나 스마트 110(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다.



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발간·배포

‘공직자 행동강령’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들이 공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선별하여 이를 알기 쉽게 풀이한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그 동안 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된 신고사건과 공직자 행동강령 상담 코너를 통해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재구성해 공직생활에 행동강령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은 중앙부처·지자체·교육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등 총965개 기관에 배포되었으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위원회 자료 > 부패방지 > 부패방지정책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번호 <국민권익>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국민권익>은 독자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을 환영합니다.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3월 22일)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는 보상을 노리고 위장 전입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파렴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제약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피해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전문성과 인간미를 두루 갖춘 이일우 국민권익위 조사관의 발로 뛰는 행정으로 막다른 길에 놓인 한 시민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다니 고맙고 존경스럽습니다. 민원 현장의 최일선에서 늘 웃음으로 해피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권익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조혜미(광주광역시 북구)**

요즘 공정한 사회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학벌, 지역, 지위에 따라 출세에 영향을 미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심의 호루라기로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은 부정부패에 맞서 양심의 소리를 내는 권익 수호자들입니다. 앞으로 눈부신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박주영(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골 태생인 저는 어렸을 적, 황토로 지은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황토' 기사를 읽으면서 당시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지낸 것이 황토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토가 이렇게 유익한 물질임을 새삼 깨달으며 고향에서 살던 그때를 잠시나마 그리워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꼭 흙집에서 살고 싶네요. **강상철(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co를 만나는 Global 산책> 기사를 읽고 매우 반가웠어요. 재작년 유럽여행 중이던 언니가 핀란드 산타마일에서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줬거든요. 1년 후에 발송되는 것이라 지난 2010년 12월 23일에 아주 기쁜 카드를 받았죠. 마치 산타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것처럼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준 이번 기사로 이번 달도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희(대전광역시 중구)**



독자소리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틀린그림찾기

사진에서 달라진 부분 3곳을 찾아 독자엽서에 체크해 주세요. 정답은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틀린그림찾기에 응모하신 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고객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살다보면 때론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엔 110이 있습니다.

110에 물어 보세요.

대한민국은 110으로 통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봄이 오면 산에 들에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나비를 춤추게 합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마음으로 흥겨울 수 있는 나라, 꽃과 나비처럼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01+02 2011 vol. 18

illust by . 김 준겸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www.acrc.go.kr